

드라이버 샷을 가장 멀리, 페어웨이의 중앙에 날려보자

최 헤 영

프로골퍼 · 골프 칼럼니스트 | choipro@choigolf.com

드라이버 샷에 죽고 사는 남자 골퍼들

골프 코스 라운드 시 뭐니 뭐니 해도 드라이버 샷 거리가 왕창 나줘야 골프, 그 맛이 난다. 그래서 특히 한국 남자 골퍼들은 동료들과 함께 라운드 가서 자신의 드라이버 샷에 목숨을 건다.

드라이버 거리가 가장 멀리 가 있으면 어쩐지 으쓱해지며 힘 있어 보이고 천하를 얻은 듯한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심지어 드라이버 샷 열네 번 중 열두 번의 샷이 모두 다 잘 안 되어 O.B도 나고 해저드로 가도 한두 번의 호쾌한 드라이버 샷으로 가장 멀리, 페어웨이 중앙으로 공이 날아가 주면 그 전에 모두 잘 안 되었던 샷도 용서가 될 지경이 된다.

티잉 그라운드 왼쪽 티 마커 근처에 볼을 위치

이렇게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행복이나 스트레스나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 샷이 정작 뜻대로 안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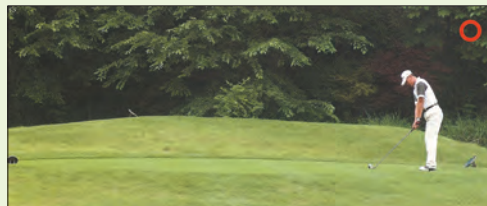


그림 1

어 고민이다. 쉽고, 간단하게 똑바로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티잉 그라운드의 왼쪽 티 마커 근처에 볼을 위치시킨다(그림 1). 파3홀 · 파4홀 · 파5홀 모두, 언제나!

방향성과 거리에 마이너스가 되는 습관

대부분의 슬라이스형 스윙을 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은 티잉 그라운드 오른쪽에 볼을 위치시켜 페어웨이 왼쪽을 향해 스윙을 한다(그림 2). 볼의 처음 방향은 왼쪽인데 임팩트 시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 볼이 왼쪽에서 오른쪽의 스핀이 생겨 슬라이스 샷이 되고, 임팩트 시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 곧장 왼쪽으로 가는 풀 샷이 된다(그림 3 참조). 방향성 문제뿐만 아니라 거리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된다. 티잉 그라운드의 왼쪽 티 마커 근처에 볼을 위치시키고 스윙하면 자동적으로 페어웨이의 오른쪽을 향한 스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볼의 처음 방향은 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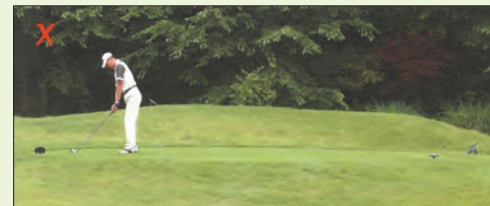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쪽인데 임팩트 시 클럽 페이스가 조금(스윙 궤도에 2° 정도) 닫혀주면 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스핀이 생겨 드로우 샷이 되고(그림 3),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 곧장 오른쪽으로 가는 푸시 샷이 나온다.

왼손등이 보이는 '스트롱 그립' 필요

그래서 우선 다운 스윙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클럽을 던져줄 수 있는 동작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선택! 즉 티잉 그라운드의 왼쪽 편에 공을 위치시키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번 시도해 보라.

이때 곧장 오른쪽으로 가는 푸시 샷보다 드로우 샷이 나아 거리가 훨씬 더 날 수 있다. 그래서 왼손의 그립을 왼손등이 보이게 해서 잡아주는, 소위 스트롱 그립을 해야 한다. 왼손의 그립을 (그림 4)처럼 왼손등이 목표를 향해 그립한 골퍼들은 임팩트 시 왼팔과 왼손, 클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임팩트를 지나며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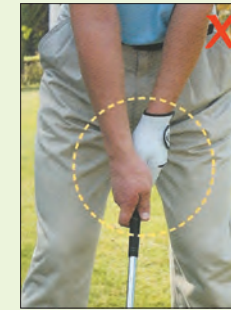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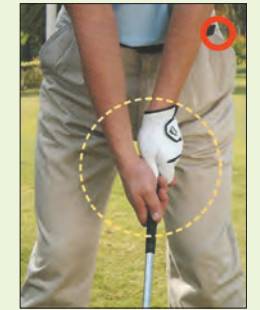


그림 5



그림 6

50야드 더 나가는 샷을 거뜬히!

볼이 목표 방향으로 향하는 정확한 드로우 샷을 하려

면 임팩트를 지나

며 클럽 페이스가 스윙 궤도에 2° 정도 닫히게 되어야 한다.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임팩트를 지나며 로테이션이 잘 되려면 왼손등이 보이게 잡혀지는 스트롱 그립을 해야 한다(그림 5). 즉 클럽에 왼손을 가져다 댈 때 왼손등이 좀 보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등을 돌려놓은 다음 왼손을 그립에 가져다 대고 손을 쥐어야 한다(그림 6). 그러면 클럽을 목표의 바깥쪽으로 던져주는 스윙이 되고, 이때 왼손의 스트롱 그립으로 인해 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스핀을 갖게 도와주어 거리가 50야드 이상 더 갈 수 있는 드로우 샷을 하게 된다. 드라이버 샷을 하여 볼을 가장 멀리, 페어웨이 가운데 날릴 수 있는 최고의 비싼 레슨이 될 것이다. 📌

외국인 친구에게도 비법을 알려주자!

Elongating 50 Yards in Distance & Correcting Directional Force

The first step is to position yourself near the left tee marker on the teeing ground and place the ball on the tee. Secondly, Grip left hand strong style by rotating your left hands clockwise so that the back of your left hands are visible.